

사시존치 주장의 허구와 법학전문대학원의 진실

사법시험 폐지는 법률로 정해진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The Truth of The Law School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KOREAN ASSOCIATION OF LAW SCHOOLS



정의의 여신 디케(Dike)는 두 눈을 가린 채 한손에는 저울을 들어
옳고 그름을 가려내고 다른 손에는 칼을 들어 잘못을 심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법조인 양성 시스템의 과도기에 있다.

디케가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하기 위해 눈을 가렸듯이
우리도 서로의 이익과 명분만이 아닌 대한민국 법학교육의 미래를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 고민할 때이다.

CONTENTS

막연한 기대만 갖게하는 사법시험 존치주장의 허구	04
법학전문대학원 체제하에서 사법시험을 존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	08
시험 기회만 주는 사법시험, 내일이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12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법조인 양성제도	14
경제적 약자에게 필요한 것은 시험이 아닌 입학의 기회와 장학금	16
다른 전문대학원과 비교했을 때, 법학전문대학원 실질등록금 최하	18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제도	20
법학전문대학원의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	21
사회적 약자를 먼저 생각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제도	22
사법시험보다 입학자 출신대학 2.5배 많아 출신대학의 다양화를 실현한 법학전문대학원	24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법학전문대학원	28
최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지원 현황	29
다양한 직역에서 활동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조인	30

사법시험 존치 주장의 허구성

① 국민의 75%가 사법시험 존치를 지지?

- “1,000명 중 74.6%가 사시존치를 지지했다.”고 하나(동아일보 2015.5.28) 여기서 1,000명은 응답자입니다.
- 이 조사의 응답률은 11.6%였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88.4%는 무관심합니다.
- 질문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데 로스쿨 제도와 사법시험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고 질문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② 사시가 신분이동의 사다리?

이재협 교수등 연구 결과 (『서울대학교 법학』 제56권 제2호, 한겨레 2015.6.22)

- 사시가 더 이상 계층이동의 역할을 하지 못함.
- 소득분포 및 교육정도가 높은 가구의 비율이 사시와 로스쿨에서 차이가 없음.
- 집안에 법률가가 있는 정도도 사시와 로스쿨에서 차이가 없음.*

*부모, 가족, 친척 중 법률가가 있는지 여부

구 분	법학전문대학원	40기 ~ 43기	34기 ~ 43기
부모 중 법률 전문가 있다	3.6%	4.7%	3.0%
가족 중 법률 전문가 있다	8.4%	10.7%	8.7%
가족 및 친척 중 법률 전문가 있다	26.3%	29.7%	33.0%

③ 사법시험 존치로 비로스쿨 법학교육이 정상화?

- 사법시험이 존치되면 우수한 대학의 학부생들이 대거 사시에 응시하여 비로스쿨 법학전공생들에게는 기회가 별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사법시험의 경우 서울대 비법이 2,3위)
- 상위 10개 대학의 사법시험 점유율이 84.53%였고, 사법시험 합격생의 수가 적을수록 집중도가 더 높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으로 사법시험이 존치되어도 비로스쿨 대학의 법학전공자가 사법시험에 합격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④ 법학전문대학원은 중산층이 도전할 수 없는 비용이 든다?

- 장학금이 등록금 총액의 38.2%가 지급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도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받아 등록금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 한국장학재단의 대여장학금을 6,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당장 돈이 없어도 변호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공무원임용시험도 경쟁률이 높다?

- 변호사시험은 선발시험이 아닌 자격시험입니다.

사법시험 존치론이 간과하고 있는 것들

① 사법시험 폐지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변호사시험법 [법률 제9747호, 2009. 05. 28. 제정]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사법시험법은 폐지한다.**

[2009. 04. 29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참석위원 229명 중 찬성 167명, 반대 25명, 기권 37명]

- 사법시험은 1995년부터 2008년까지 13년 동안의 논의 끝에 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 사법시험은 2008년(법과대학이 폐지되기 전 마지막 입학) 입학한 학생에게 10년의 응시기회를 주고 폐지하기로 했으며, 수많은 국민들이 국가가 10년 전에 한 약속을 믿고 자신의 진로를 결정했습니다.

② 사법시험이 존치되면 법조사회는 완전히 양분되어 대립과 갈등이 계속될 것입니다

- 사법시험 존폐에 대한 논란 속에서 사법시험 출신 법률가와 법전원 출신 법률가들은 상호 극심한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 사법시험이 존치되면 이러한 대립구도는 고착될 것이고 분열된 법조사회로 인해 국민은 사법제도 자체를 불신하게 될 것입니다.

2017년 폐지될 사법시험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사시(司試)존치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엇그제 국회에선 여야 국회의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시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토론회도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그동안 사시가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했다”며 사시와 로스쿨 제도의 절충을 언급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로스쿨이 법조인 선발을 독점하게 되면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특권층이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사시 존치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들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사시 존치 주장에 앞서 왜 여야가 사시폐지에 합의했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사시제도가 법조계의 배타적 독점을 낳고, '사시 낭인' 등 국가적 인력 낭비를 초래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사시 합격증은 우리 사회의 평생 특권 신분증으로 통한다. 국회가 청문회 때마다 후보자들의 전관예우를 문제 삼으면서 정작 사시로 굳어진 법조계의 기득권은 못본 척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사시 존치론의 논거는 한마디로 로스쿨의 비싼 학비가 신분상승을 막는다는 것이다. 변호사 공급이 늘어난 데 따른 법조계의 위기감도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로스쿨은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이 36%이고, 저소득층에는 국가 전액 장학금도 있다. 사시만이 '희망 사다리'이고 로스쿨은 '부의 대물림'이란 이분법은 왜곡에 가깝다. 사시 준비생들이 기약도 없이 각자 부담하는 비용도 결코 만만치 않다.

사시를 로스쿨로 전환하는 것은 법조인의 '특권 신분증'을 누구나 요건을 갖추면 딸 수 있는 자격증으로 바꾸자는 취지다. 로스쿨을 통해 다양한 전공을 가진 법조인이 공급될수록 법률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이를 다시 되돌려 특권 신분증을 살리자는 주장은 기득권 지키기일 뿐이다.

- 2015. 06. 20 사설(한국경제 신문)

20대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 中

황교안 국무총리, “사시 일부라도 존치하면 로스쿨 시스템 흔들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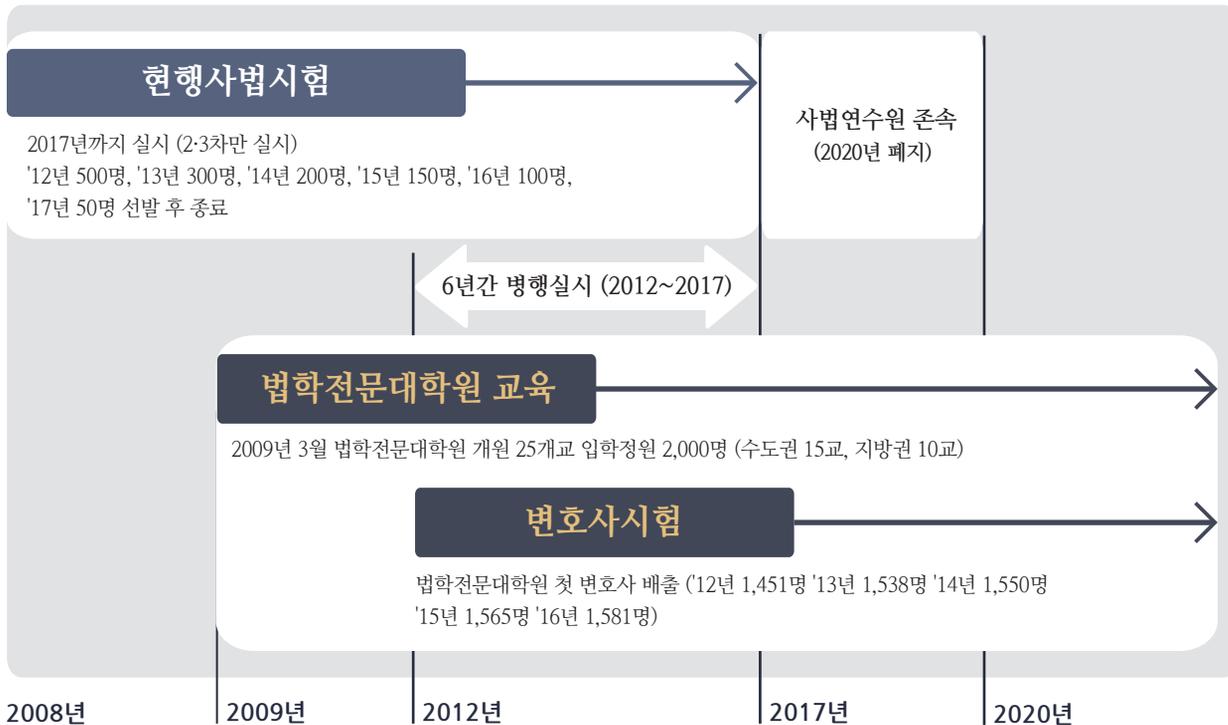
황교안 국무총리는 5일 사법시험 존치 주장에 대해 “사시를 일부라도 존치시킨다면 로스쿨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흔들리게 된다”며 쉽사리 (예전 제도로) 되돌린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이 “로스쿨에 가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 사시를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한 데 대해 이같이 대답했다.

황 총리는 “로스쿨이 처음 도입될 당시엔 걱정이 많았고, 저도 우려하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미 로스쿨이 도입이 된 상황”이라며 “단 50명이나 100명이라도 사시 출신 법관을 배출한다면 로스쿨 자체가 비정상화가 된다”고 지적했다.

- 연합뉴스, 2016-07-05

<참고> 변호사시험 시행 경과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하에서는 사법시험을 존치해서 안 되는 이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사법시험 제도에 기초한 법조인력 양성 체제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국제화 되는 시대변화와 다양한 국민의 법률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에 기초하여 이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대학교육의 황폐화

- 사법시험이 존치되면 학부에서 전공공부를 하지 않고 사법시험 준비에 매달리게 되어 학부 교육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을 제대로 공부한 학생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을 공부해야 전문성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법률가가 될 수 있습니다.

▣ 법대 ‘셀링’ 고시원 ‘복적’ (한겨레, 1995년 2월 18일)

“대다수 법대생이 학교수업을 소홀히 한 채 저학년 때부터 고시전문학원에서 시험준비에 몰두하고 있어 법과대학이 법조인 양성이라는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중간생략> 법대 입학 동기 2백70명 가운데 2백명 가량이 이미 고시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3·4학년생들은 아예 학교수업을 빼먹고 고시학원을 다니는 경우도 많다.” <중간생략>
학원에는 법과대학 교수, 현직 판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사법연수원생까지 강의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대교육의 파행적인 운영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고시열풍에 멎든 대학(동아일보, 1996년 12월 26일)

“서울대 고시학원化” 비판의 소리

고시과목 수강생 60%가 法大의 학생

사법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때문에 서울대가 거대한 고시학원화하고 있다고 비판이 서울대 교수에 의해 제기돼 논쟁을 일으켰다.

서울대 법대 崔大權(최대권)교수는 최근 교육부가 발간한 「대학 학부교육과정 실태분석」 및 개신발행에 관한 연구에 게재된 「학부교육과 법학교육」이란 글에서 「지난 서울대 법대의 경우 고시과목 블록 수강생의 2분의 1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학생이 정치 외교 경제 학과를 필수로 인문대 사회대 사법대 자연대 공대 학생들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최교수는 「이것은 다른 학과나 대학의 시각에서 보면 자기과의 상당이 많은 학생이 자기과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고시과목이나 법대 과목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최교수는 이러한 분위기를 법대생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여서 「법대에 들어오는 바로 그해부터 사시 등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체로 2학년 때부터 시험준비에 들어가 사시과목에 해당하는 법학 과목만 듣게 된다고 꼬집었다.

최교수는 심지어 「지금 법학 전공의 대학원과정 에 적을 둔 학생의 극소수를 제외한 전체의 5분의 4 이상인, 아니 90%의 학생이 학부과정 후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행의 법학연기 혜택을 받으면서 사시 등 국가시험을 준비한다고 비판했다. (李澈賢기자)

崔大權교수 논문서 지적

지방 분산에 역행

- 사법시험이 존치된다고 지방 대학생들이 기회를 갖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소수의 서울 소재 대형 대학이 대부분의 합격생을 배출하게 됩니다.
-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서 다수의 법률가가 배출되어야 지방 대학생들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 사법시험은 실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의 절반은 전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법조인 양성의 원칙: 시험에 의한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한 양성

1 교육을 통한 양성

- 체계적 교육과정에서 법원리를 습득하여야 응용력을 가진 법률가가 될 수 있습니다.
- 토의, 질의응답, 모의재판, 임상실습, 인턴, 개인생활지도, 다양한 교과외 활동(논문공모, 학술지, 동아리등) 등을 통해서 법률가로서의 소양과 인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 독학과 학원강의를 통한 학습은 단순히 합격을 위한 문제와 답을 외우는 과정에 지나지 않아, 법률가로서의 기초적인 역량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 변호사를 체계적인 교육 없이(어디서든지 법학과목 35학점만 이수하면 응시자격 부여) 시험으로만 뽑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일본과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2 다양성, 전문성, 국제경쟁력

- 다양성, 전문성, 국제경쟁력을 갖춘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부 전공을 제대로 공부한 후에 법학을 공부해야 합니다.
-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학부 전공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아서 다양성, 전문성, 국제경쟁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법전원의 문제점이 사법시험 존치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 사법시험 존치 주장은 법전원에 대한 비난에서 출발했습니다.
- 그 비난의 당부는 차치하고라도 법전원의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해결해야지 사법시험이 존치된다고 법전원의 문제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법시험은 결코 취약계층에게 열려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 >

취약계층은 특별전형을 통해서 입학의 기회를 갖습니다. 2016년까지 평균 총정원의 6.37%가 특별전형을 통해서 입학하였고, 지금까지 315 명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1~4회 기준) *

등록금 대비 38.2%(2013년 기준)가 장학금으로 지급되므로 특별전형입학생 외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은 장학금을 받아 안정적으로 공부하여 3년 후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특별전형 입학생 외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 많이 진학합니다. 가구의 연소득이 2600만원 이하인 학생이 전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의 23%입니다.

사회경험이 있는 나이든 학생들도 법학전문대학원에 들어와 3년 동안 공부하고 변호사가 되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중 29세 이상이 35%이고 직장경험이 있는 사람이 46.7%입니다. 이들은 사시에 도전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 사법시험 >

사법시험이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어 공정한 경쟁이라고 하나 실제로는 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사법시험 평균 합격연령은 28세, 준비기간 평균 5년, 매년 평균 1천5백만원 이상의 비용(생활비, 교재비, 학원비 포함)이 소요되는데 합격할 확률은 2.93%에 불과하므로 취약계층이 도전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장학금을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되지 못합니다.

사법시험 공부에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사회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나이 들어 사시에 도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법시험 합격자 중에서 직장 경험이 있는 사람은 6.6%에 불과합니다.

*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의 법조인 다수 배출, “변호사시험 제1회 82명, 제2회 75명, 제3회 83명, 제4회 75명 합격,” (법무부 보도자료, 2015, 04, 10)

법학전문대학원의 공(功) VS 사법시험의 과(過)

<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 >

대학교육 정상화
취약계층에 직접 기회 부여
지방대학 출신자 기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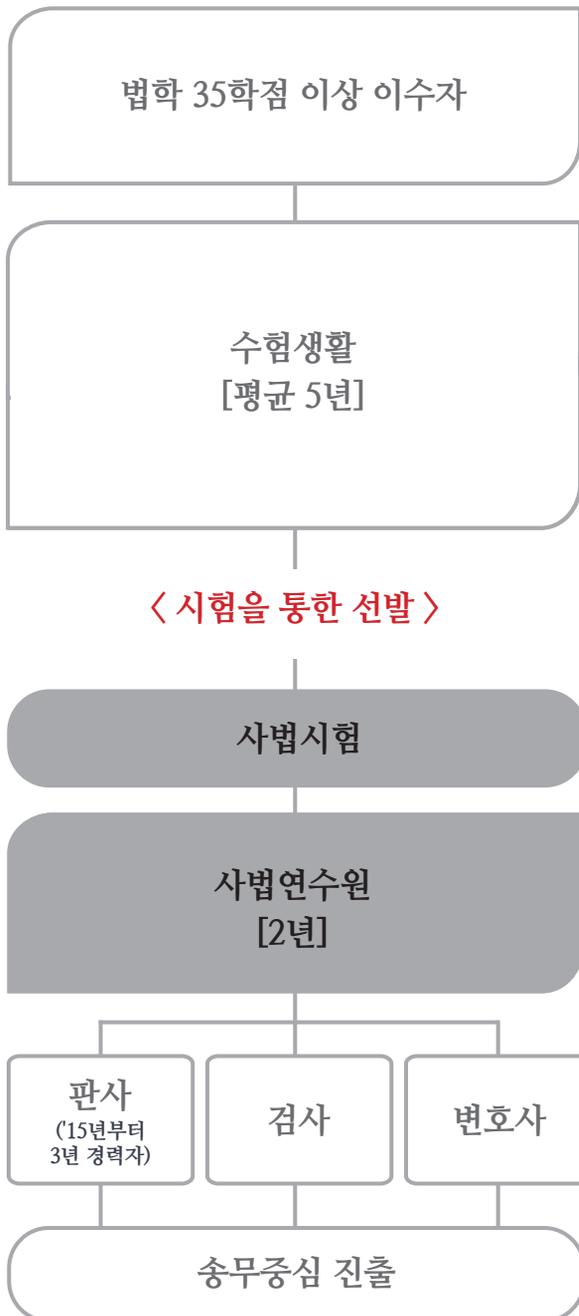
< 사법시험 >

대학교육 황폐화
취약계층이 도전하기 어려운 구조
서울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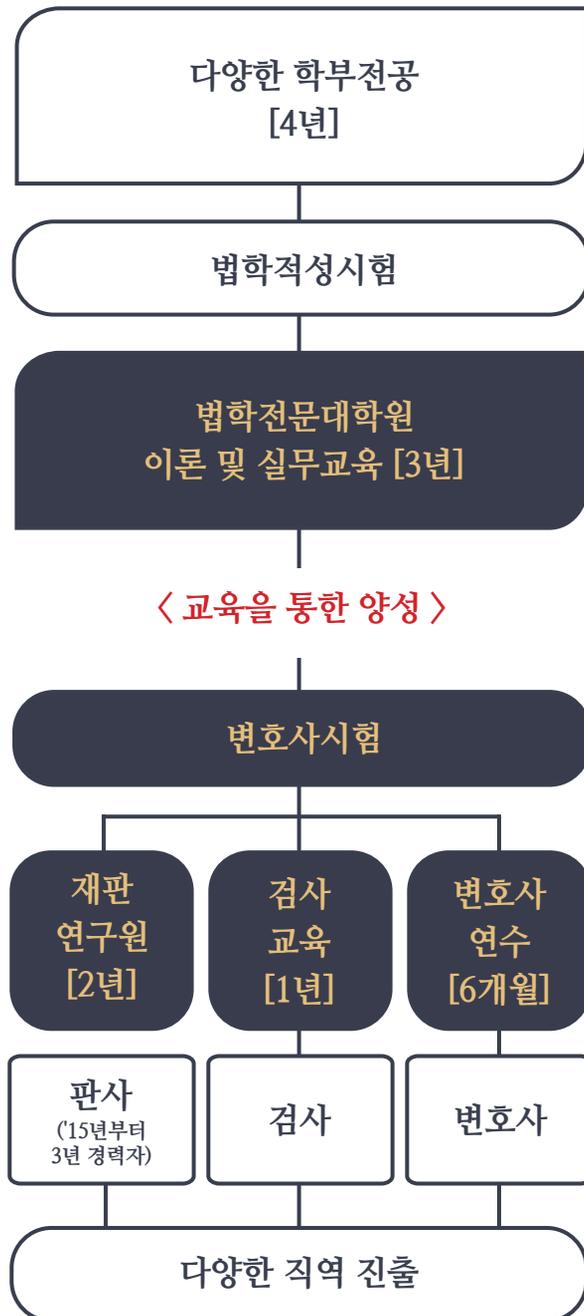
법조인 양성 시스템 비교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제도는 기존 사법시험 중심의 법조인 양성 시스템 하에서 제기됐던 **법학교육의 폐쇄성, 전문 인력 양성의 불충분**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법조인 양성 시스템입니다. 한 번의 시험으로 법률가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공과 경력을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이론+실무)을 실시해 법률가를 양성합니다.

사법시험 제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시험 기회만 주는 사법시험, 내일이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사법시험은 고난입니다. 합격자의 평균 수험기간만 5년이 넘습니다. 기본적으로 수험자를 탈락시키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도 합격하지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입신양명이라는 미명 하에 허황된 희망을 심어주는 대신 체계적인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실질적인 미래를 보장해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소시민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사법시험은 가난한 학생이 도전하기 힘든 시험입니다

- 사법시험은 형식상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 사법시험 응시자격: **대학과정에서 법학과목을 35학점 이상 이수하고 영어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 ← 학력 제한 없이 누구나 법학시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 ※ 지난 5년간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예는 없음**

1 사법시험의 합격률 고작 2.93%

- 합격률이 매우 낮아 기약없는 수험생활을 해야하는 사법시험은, 경제적인 뒷받침이 없는 사람은 물론이고 일반인들조차 쉽게 도전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연도	출원 인원	합격 인원	합격률
1963년 ~ 2015년	702,513명	20,603명	2.93%

2 사법시험 VS. 변호사시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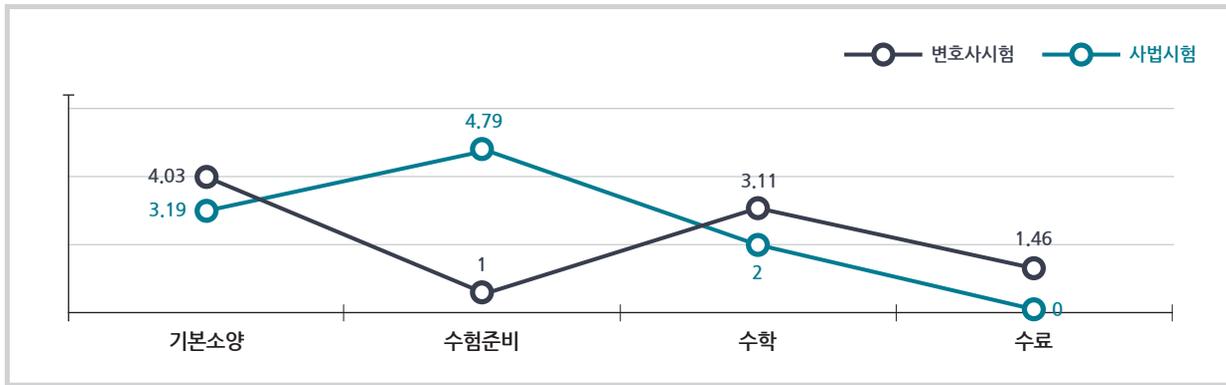
(단위: 년 / 천원)

구분	변호사시험 (A)		사법시험 (B)		차이 (A-B)	
	기간	금액	기간	금액	기간	금액
1. 기본소양	4.03	23,256	3.19	18,477	0.84	4,779
2. 수험준비	1	2,312	4.79	19,657	-3.79	-17,345
3. 수학	3.11	48,109	2	32,073	1.11	16,036
4. 수료	1.46	11,895			1.46	11,895
5. 생활비		70,496		77,502		-7,006
6. 기회비용		123,002		149,027		-26,025
합계	9.6	279,070	9.98	296,736	-0.38	-17,666

※ 출처: 사법시험 기간/금액 추정은 천도정/황인태 교수 논문, 변호사시험 기간/금액 추정은 김두열 교수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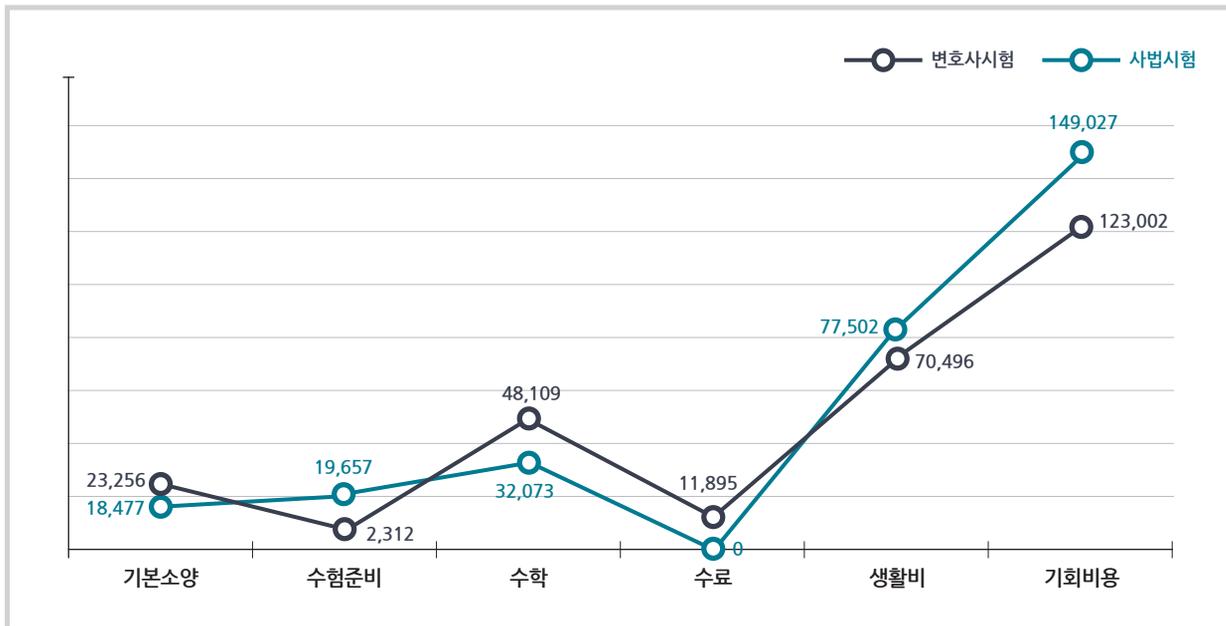
< 준비 기간 비교표 >

(단위: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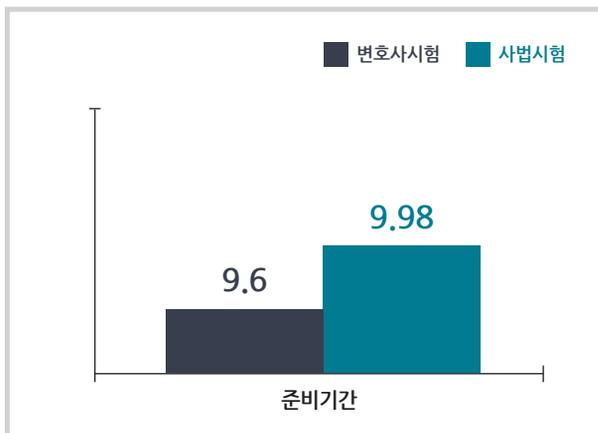


< 비용부담 비교표 >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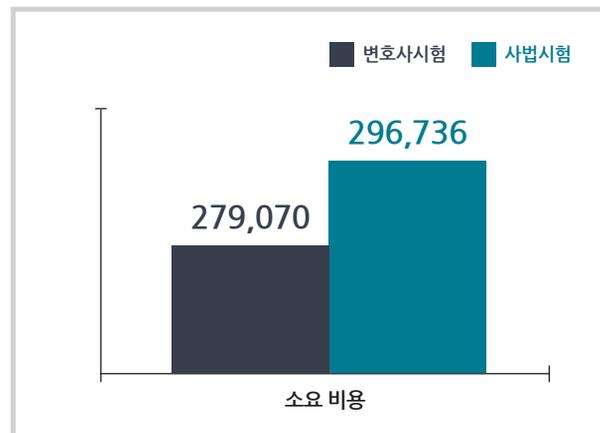


< 준비 기간 >



< 소요 비용 >

(단위: 천원)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법조인 양성제도

현대의 법적 분쟁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수준을 넘어 점점 복잡해지고 있으며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 속에 기존의 사법시험제도 하에서는 불가능했던 의료, 금융,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법조인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양성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포괄적이고 일괄적이었던 법률서비스가 세분화되고 특화된 형태로 발전됨을 의미합니다.

다양성: 다양한 지역 인재, 전공 및 사회적 경험을 가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의 증가



지역인재의 다양성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5학년도부터 지방 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은 해당 지역 대학교 출신자를 일정비율(강원·제주: 정원의 10%, 그 외 지역: 정원의 20%, 180명) 이상 선발해야 합니다. 사법시험 제도보다 지역인재들의 법조인 진입장벽이 훨씬 더 낮아졌습니다.



출신대학의 다양성

법학전문대학원은 국내 평균 102개교에서 입학생을 배출하고 있는 반면, 사법시험은 매년 평균 40개 대학에서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법조인 진출 문호가 사법시험제도보다 개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공의 다양성

지난 8년 간 법학전문대학원에는 총 9,075명(연 평균 54.8%, 1,134명)의 비법학 전공자가 입학하였습니다. 그리고 1회부터 5회까지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비법학사 비율은 50.0%(3,843명)에 달합니다.



지식과 경험의 다양성

의사, 약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교사, 향해사, 공무원, 언론인 등 다양한 직업과 자격을 갖춘 이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각 분야의 전문변호사가 되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다양한 전공의 학부생과 지역인재가 선발되어 법조인의 다양성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와 사법시험 합격자 출신대학 총 수 〉

지역	출신대학 수
서울	26개
경기/강원	14개
충청	8개
경상	17개
전라/제주	9개
합계	74개 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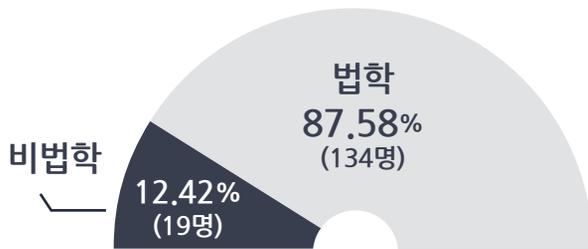
VS

지역	출신대학 수
서울	37개
경기/강원	17개
충청	15개
경상	27개
전라/제주	12개
합계	108개 대학

2002~2014 사법시험 합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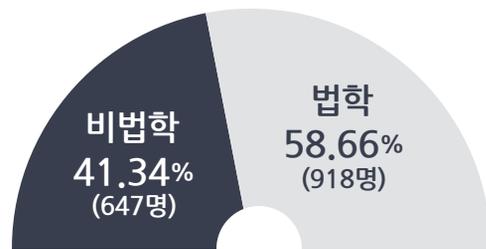
2009~2013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 합격자 전공현황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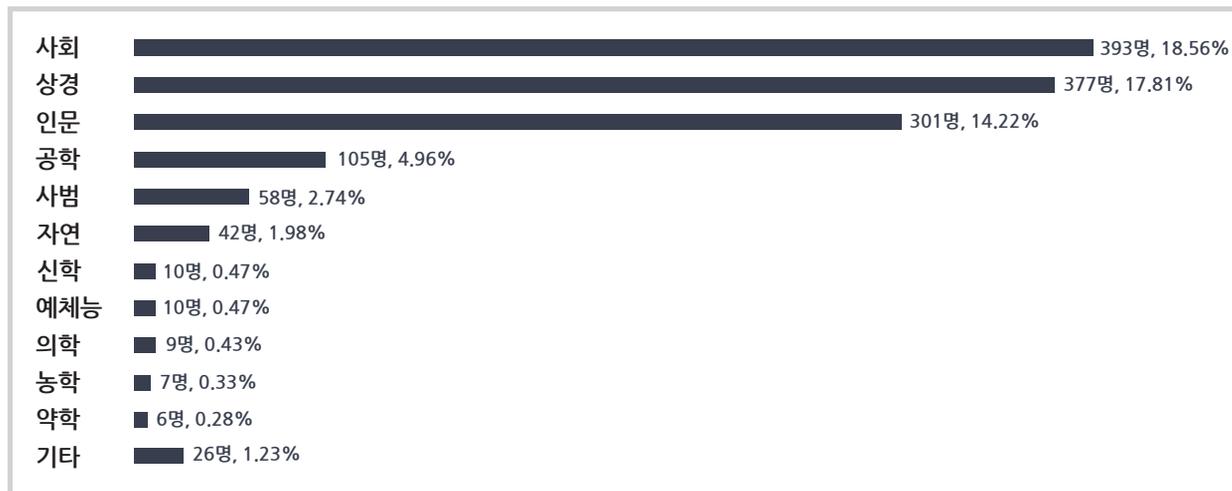
2015년도 제57회 사법시험 합격자 153명

≫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565명

〈 201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 2,117명 중 비법학사 1,344(63.49%)의 계열별 현황 분석 〉



경제적 약자에게 필요한 것은 시험이 아닌 입학의 기회와 장학금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로스쿨을 통하여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든든한 장학금이 있습니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장학금 지급현황을 전수조사(15.06.24 ~ 07.06) 한 결과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적 환경만을 고려하여 어려움을 덜어주는 든든한 장학금은 사법시험보다 법학전문대학원 저소득층에게 더 큰 희망을 줍니다

- 법학전문대학원(25개교, 6,021명 중)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가구 연소득 52,190천원 이하 인원(2,013명, 33.4%)에게 50%이상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 외에도 가구 연소득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위: 명, %)

가구 연소득	지급인원(명)	비율(%)	누적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64	4.4	4.4
~ 16,760천원 이하	801	13.3	17.7
16,760천원 초과 ~ 26,040천원 이하	279	4.6	22.3
26,040천원 초과 ~ 33,510천원 이하	204	3.4	25.7
33,510천원 초과 ~ 39,720천원 이하	180	3.0	28.7
39,720천원 초과 ~ 45,650천원 이하	160	2.7	31.4
45,650천원 초과 ~ 52,190천원 이하	125	2.1	33.4
52,190천원 초과 ~ 59,790천원 이하	144	2.4	35.8
59,790천원 초과 ~ 70,710천원 이하	207	3.4	39.3
70,710천원 초과 ~ 88,110천원 이하	240	4.0	43.2
88,110천원 초과 ~	413	6.9	50.1
기타	675		61.3
합계	3,692	61.3	-

※ 2014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25개교) 장학금 지급 현황 기준

< 연소득 기준 장학금 누적인원(명) >

소득 분위	기초 수급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기타
누적 인원	264	1,065	1,344	1,548	1,728	1,888	2,013	2,157	2,364	2,604	3,017	3,6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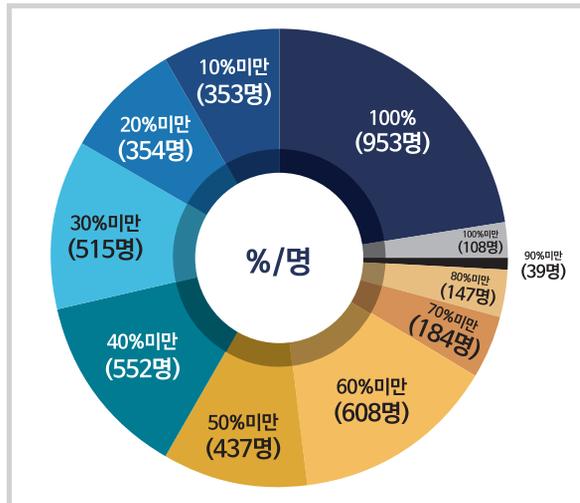
법학전문대학원 현 재학생 6,021명 중 4,250명(70.6%)에게 장학금 35,846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전액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953명(15.8%)으로 지급총액은 15,418 백만원입니다. 경제적·신체적·사회적 취약계층인 특별전형 입학생 394명(6.38%)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환경만을 고려하여 전액 장학금을 폭넓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3년간 전액장학금 1인당 지급액은 국·공립 평균 32,157천원, 사립 59,493천원입니다. (생활비·지원금 미포함)
- 전체 장학금 수혜자 중 등록금 50% 이상 수혜 학생 수는 2,039명으로 3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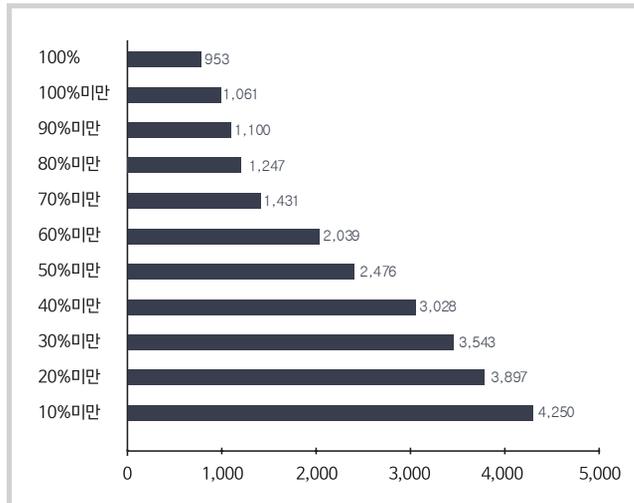
(단위: 명, %)

장학금 지급비율	국·공립(10개교)	사립(15개교)	합계(25개교)	구성비
100%	379	574	953	15.8
90% 이상 ~ 100% 미만	80	28	108	1.8
80% 이상 ~ 90% 미만	21	18	39	0.6
70% 이상 ~ 80% 미만	20	127	147	2.4
60% 이상 ~ 70% 미만	28	156	184	3.1
50% 이상 ~ 60% 미만	184	424	608	10.1
40% 이상 ~ 50% 미만	250	187	437	7.3
30% 이상 ~ 40% 미만	61	491	552	9.2
20% 이상 ~ 30% 미만	105	410	515	8.6
10% 이상 ~ 20% 미만	205	149	354	5.9
~10% 미만	293	60	353	5.9
합계	1,626	2,624	4,250	70.6

< 장학금 지급 비율별 인원 >



< 장학금 지급 비율별 누적인원 >



다른 전문대학원과 비교했을 때, 법학전문대학원 실질등록금 최하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의 등록금, 실질 등록금을 비교해 봤을 때, 법학전문대학원의 실질등록금은 낮은 수치인 반면 장학금의 비율은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1인당 연간 등록금 (2015년 대비 등록금 인하 금액)

(단위: 천원)

구분	인하 전	→ →	인하 후
국·공립	10,442	 동결	10,442
사립	19,195	 학생 1인당 242만원 인하	16,775

- 등록금을 인하함으로써 학교 부담액은 연간 약 80억 원에 이르지만, 법전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등록금 인하와 관계없이 모든 국·공립, 사립 법전원은 장학금 지급율을 30%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2학기 등록금 15% 인하...연평균 1천643만원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11개 사립대 로스쿨이 올해 2학기부터 등록금을 평균 15%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국립대 로스쿨 10곳과 연세대와 고려대 등 사립 4곳은 등록금을 동결합니다. 인하를 결정한 11개 사립 로스쿨의 연간 등록금은 평균 1천643만원이 되고 동결한 4개 사립 로스쿨은 평균 1천898만원입니다. 교육부는 내년 로스쿨 2주기 인증 평가에 등록금 부담 경감 현황을 주요 지표로 반영하되 등록금을 동결한 사립 로스쿨 4곳은 법정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 연합뉴스TV, 2016-05-16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및 입학생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교육부는 모든 국립대학이 5년간 등록금 동결을, 11개 사립대학이 등록금 인하를 결정했다고 지난 17일 밝혔

다. 동결·인하된 등록금은 올해 2학기부터 전면 적용된다. (중략) 교육부는 “건국대·한국외대·서강대 등 일부 사립 법전원이 연 1500만원대 수준으로 등록금 인하를 추진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이번 등록금 인하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법전원 등록금 경감 현황은 교육부의 2017년 2주기 인증 평가에서 주요 지표로 반영될 계획이다. (중략) 교육부 방침에 따라 모든 법전원은 등록금 인하와 관계없이 장학금 지급률 3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 대한변협신문, 2016-05-23

여러 전문대학원의 2014년도 등록금 및 장학금을 비교해 보면 법학전문대학원 학비가 비싸다는 것이 지나치게 과장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전문대학원 중 가장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사람도 열정과 의지, 그리고 능력이 있다면 충분히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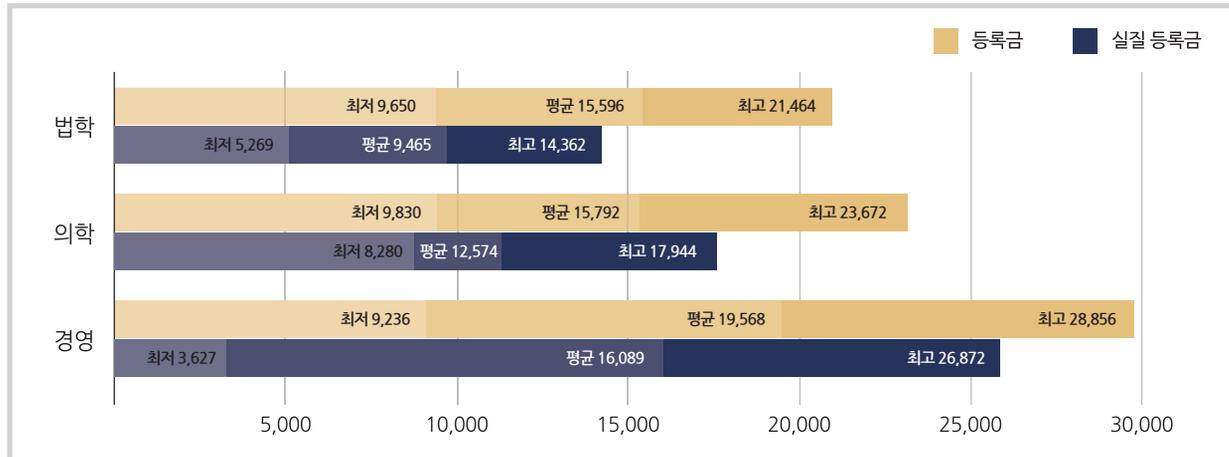
▣ 전문대학원 연간 1인당 등록금 및 장학금 비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대학] (2014년)

(단위: 천원, %)

구분		등록금	장학금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실질등록금
법학전문대학원	최고	21,464	10,855	56.2	14,362
	평균	15,596	6,131	38.1	9,465
	최저	9,650	2,356	23.4	5,269
의학전문대학원	최고	23,672	7,035	34.5	17,944
	평균	15,792	3,217	19.7	12,574
	최저	9,830	1,263	8.8	8,280
경영전문대학원	최고	28,856	5,609	60.7	26,872
	평균	19,568	3,479	22.2	16,089
	최저	9,236	1,214	4.3	3,627

▣ 전문대학원 연간 1인당 등록금 (2014년)

(단위: 천 원)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제도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은 대학본부의 감독 하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입학전형은 가나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눈술 채점은 블라인드 채점(크로스 채점)으로 진행됩니다.

1 투명한 입학전형계획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전형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신입생 모집 전에 공표하고 그에 따라 학생을 선발합니다.

2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생 선발 시 학사학위과정성적(GPA), 적성시험성적(LEET), 외국어능력(공인어학시험점수),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등 법률에서 정한 입학전형자료를 활용합니다.

3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사례

전형방법 및 내용						특별전형 (모집군, 정원)	비고
1단계 (합계)	2단계 (합계)		선발방법				
			1단계	2단계			
『특별전형』 · 어학성적: P/F · LEET성적: 100점 · 학부성적: 100점 · 정성평가: 100점 [합계: 300점]	『특별전형』 · 1단계 성적: 300점 · 면접 및 구술고사: 100점 [합계: 400점]		특별전형 모집인원의 3배수 이내의 범위에서 선발	총점 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쿼터 충족을 위한 변동 가능)		9명 이상 (‘가’군)	· 비법학사: 입학자의 1/3이상 · 타대학: 입학자의 1/3이상
1단계 (합계)	2단계 (합계)	3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일반전형』 · 어학성적: P/F · LEET성적: 100점 · 학부성적: 100점 [합계: 200점]	『일반전형』 · 1단계 성적: 200점 · 정성평가: 50점 [합계: 250점]	『일반전형』 · 1단계 성적: 200점 · 2단계 성적: 50점 · 면접 및 구술고사: 50점 [합계: 300점]	일반전형 모집인원의 2.5배수 선발	일반전형 모집인원의 1.5배수 이내의 범위에서 선발	총점 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쿼터 충족을 위한 변동 가능)		

· 법전문별 자체 입학전형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 선발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 2017학년도 입학전형 개선 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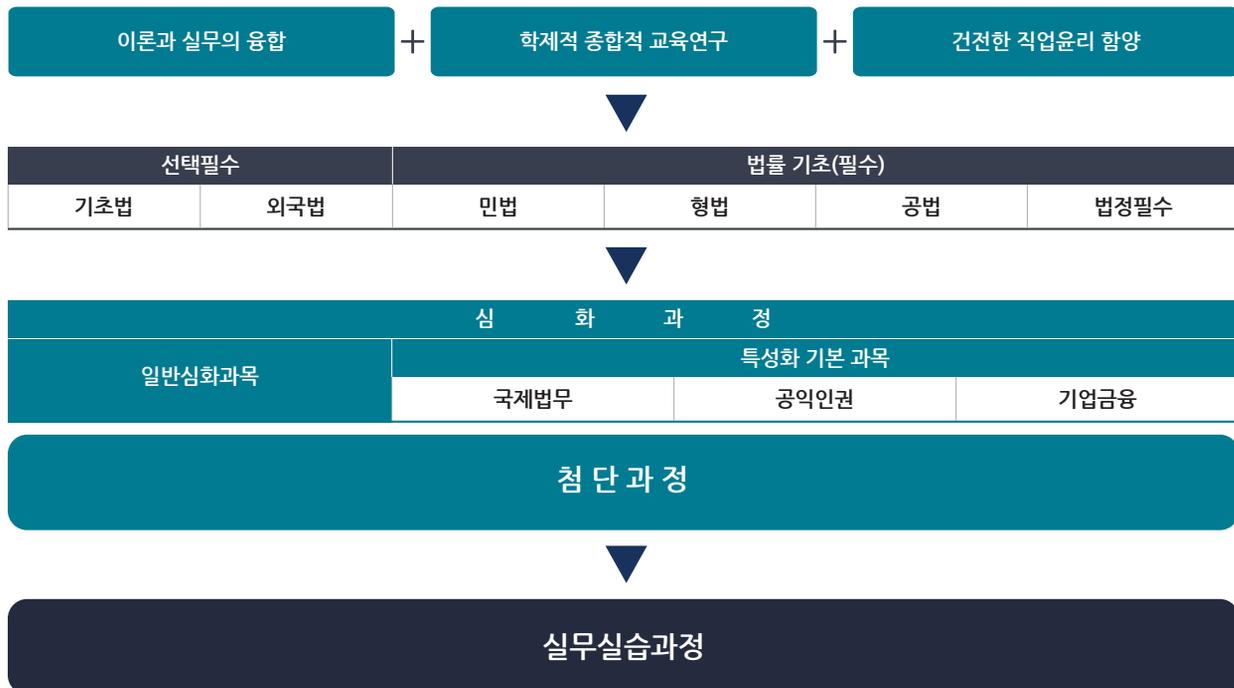


법학전문대학원의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령에서 규정한 교육이념에 맞게 법조인 양성에 필요한 교과목을 개설하여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3년 동안 9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취업시 법학전문대학원 학업성적이 고려되므로, 기존 법과 대학의 문제점 같이 수업을 무시한 채 시험과목 위주의 학습에만 매달리는 폐해를 찾아 볼 수 없습니다.
-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률이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무과목(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 학교별로 다양한 특성화 분야(환경, 부동산, IT, 금융, 조세, 기업, 의료, 물류, 문화 등)를 통하여 특화된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 스스로 기본 이론과 판례를 습득하는데 효율성과 집중력을 높여줄 수 있도록 문답이나 토론 등을 통한 소크라테스식 수업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업분위기도 또한 이전과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사례 >



사회적 약자를 먼저 생각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제도

법학전문대학원 인가기준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은 매년 입학생의 5% 이상을 취약계층에서 선발해야 합니다. 이에 법학전문대학원은 연 평균 6.37%(133명)의 취약계층 학생을 선발하여, 그들이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취약계층에 진정한 희망의 사다리입니다.

특별전형: 사회적 ·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법전원의 배려

①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 133명(6.37%) 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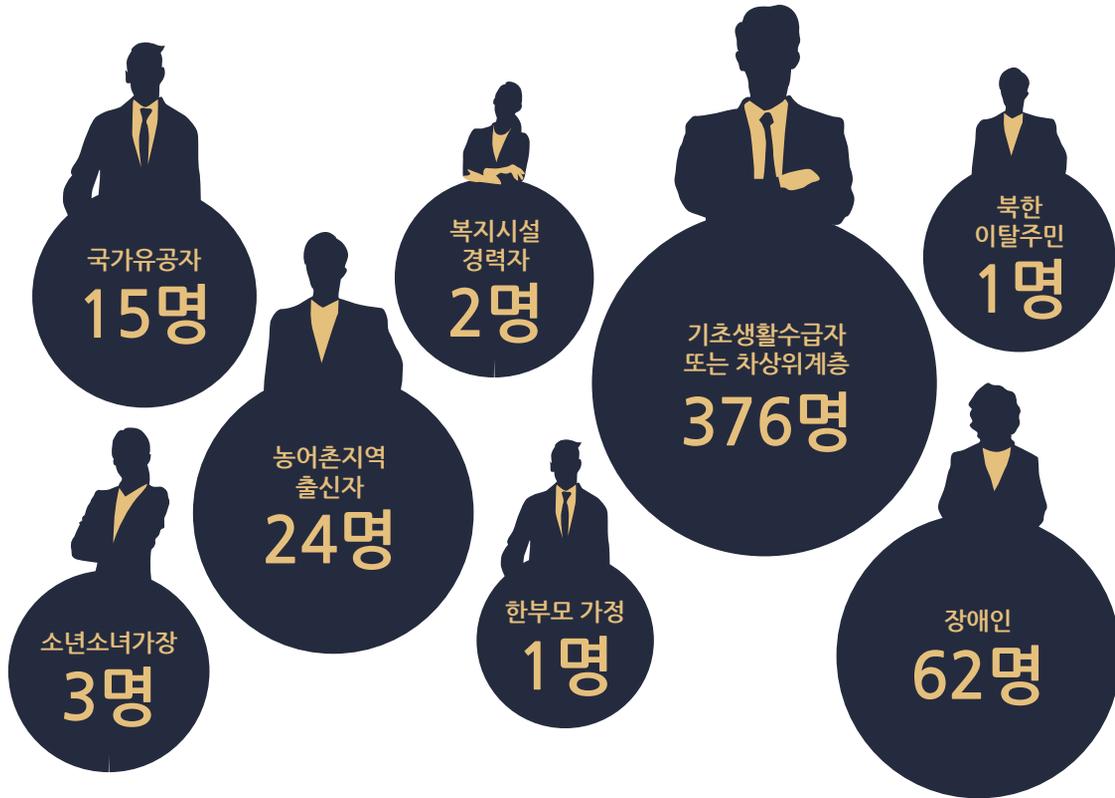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신체적·사회적 또는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위해 '특별전형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취약계층(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농어촌출신,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매년 입학정원의 5~10%의 인원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매년 평균 6.37%(133명)의 인원이 특별전형 제도를 통해 로스쿨에 입학(경쟁률 약3:1) 하고 있습니다.

학년도별	총인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새터민등	장애인
2010	125	30	50	22	23
2011	120	49	43	10	18
2012	138	53	54	12	19
2013	130	52	47	16	15
2014	132	38	57	23	14
2015	133	37	72	14	10
평균인원	129.7	43.2	53.8	16.2	16.5
구성비	100%	33%	41%	13%	13%

※ 2016년도에는 139명(6.57%)의 학생이 특별전형제도를 통해 선발됨



법학전문대학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비롯하여 지역인재의 다양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세부기준별 입학인원 (2009~2013)

2]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서 법조인 다수 배출

• 경제적 여건 등이 열악한 계층에서 특별전형으로 선발한 입학생 중 제1회~4회의 변호사시험에서 총 315명이 합격하였습니다.

구분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총
인원(명)	82	75	83	75	315

•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5명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경제적 배려자 61명, △국가유공자·농어촌지역 고교 출신자 등 사회적 배려자 4명, △장애인 등 신체적 배려자 10명이 장학금 등 학비 지원을 받아 역경을 이겨내고 합격하였습니다.

사법시험보다 입학자 출신대학 2.5배 많아 출신대학의 다양화를 실현한 법학전문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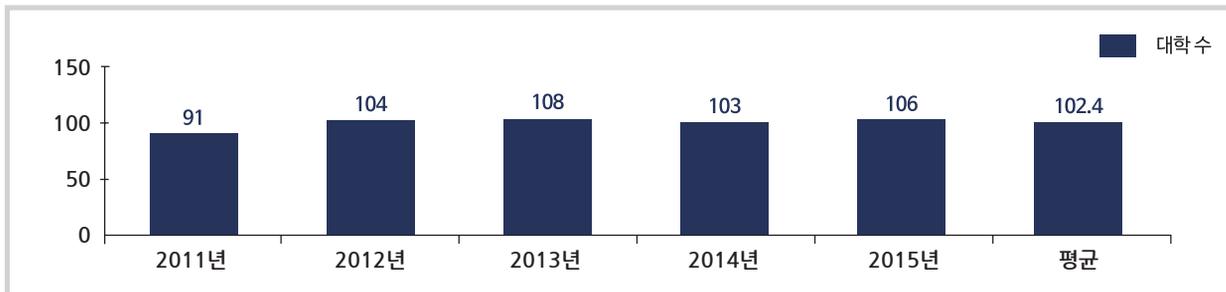
사법시험 합격자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의 출신대학 현황 분석을 위한 전수조사(15.06.22~07.22)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의 출신대학이 월등하게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전수조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10,410명과 2002년(제44회)부터 2014년(제56회)까지 사법시험에 합격한 10,45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1 전체대학 수 비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의 출신대학 수를 조사한 결과, 2011년(91개교), 2012년(104개교), 2013년(108개교), 2014년(103개교), 2015년(106개교)로 5년 평균 102.4개의 대학교에서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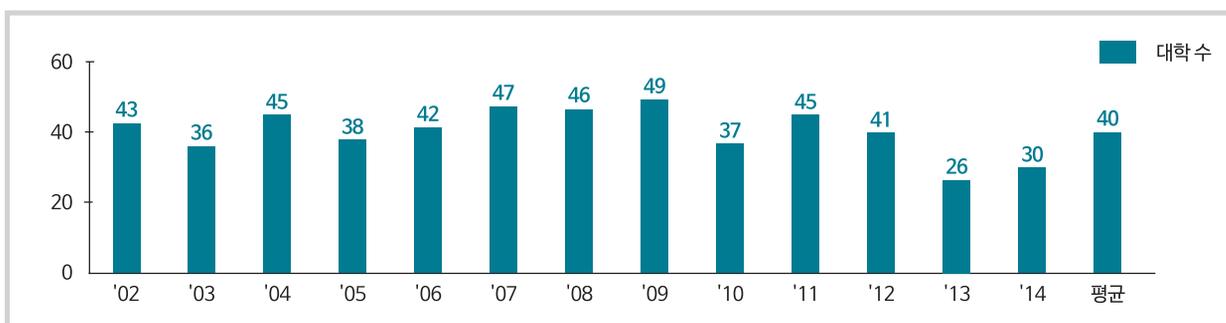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출신대학 수 (2011년~2015년) 〉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사법시험에 합격한 10,458명의 출신대학을 분석한 결과, 13년 동안 평균 40개의 대학교에서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통계자료 출처: 법무부 사법시험 홈페이지(<http://www.moj.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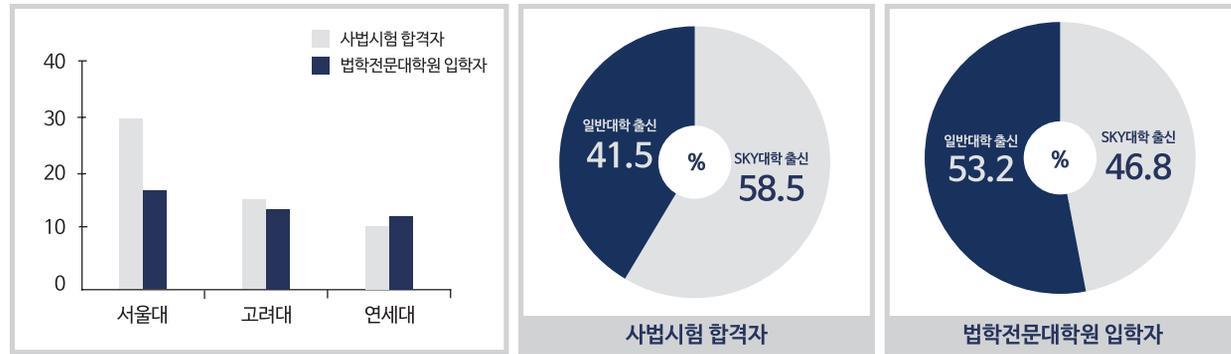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출신대학 수 (2011년~2015년) 〉



②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점유율

사법시험 합격자 10,458명 중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인원의 58.51%에 달했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10,410명 중 동대학 출신은 11.71%(P) 감소한 46.8%로 파악했습니다. (▼11.71%(P))

구성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합계
사법시험 합격자 10,458명(2002~2014)	3,192 (30.52%)	1,717 (16.42%)	1,210 (11.57%)	6,119 (58.51%)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10,410명(2011~2015)	1,856 (17.83%)	1,519 (14.98%)	1,456 (13.99%)	4,871 (46.8%)
증감율	▼ 12.69%	▼ 1.44%	▲ 2.42%	▼ 11.71%



③ 10대 대학 점유율 비교

사법시험 합격자 10,458명 중 10대 대학 출신자는 8,854명으로 84.66%를 차지했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10,410명 중 10대 대학 출신자는 7,755명으로 전체 입학자 중 74.5%를 차지했습니다. (▼10.16%(P))

10개 대학	사법시험합격자 10,458명(2002~2014)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10,410명(2011~2015)		증감율
서울대	3,192	30.52%	1,856	17.83%	▼ 12.69%
고려대	1,717	16.42%	1,559	14.98%	▼ 1.44%
연세대	1,210	11.57%	1,456	13.99%	▲ 2.42%
성균관대	705	6.74%	678	6.51%	▼ 0.23%
한양대	642	6.14%	592	5.69%	▼ 0.45%
이화여대	540	5.16%	686	6.59%	▲ 1.43%
부산대	274	2.62%	222	2.13%	▼ 0.49%
중앙대	195	1.86%	208	2.00%	▲ 0.14%
경북대	191	1.83%	197	1.89%	▲ 0.06%
경희대	188	1.80%	301	2.89%	▲ 1.09%
합계	8,854 (84.66%)		7,755 (74.5%)		▼ 1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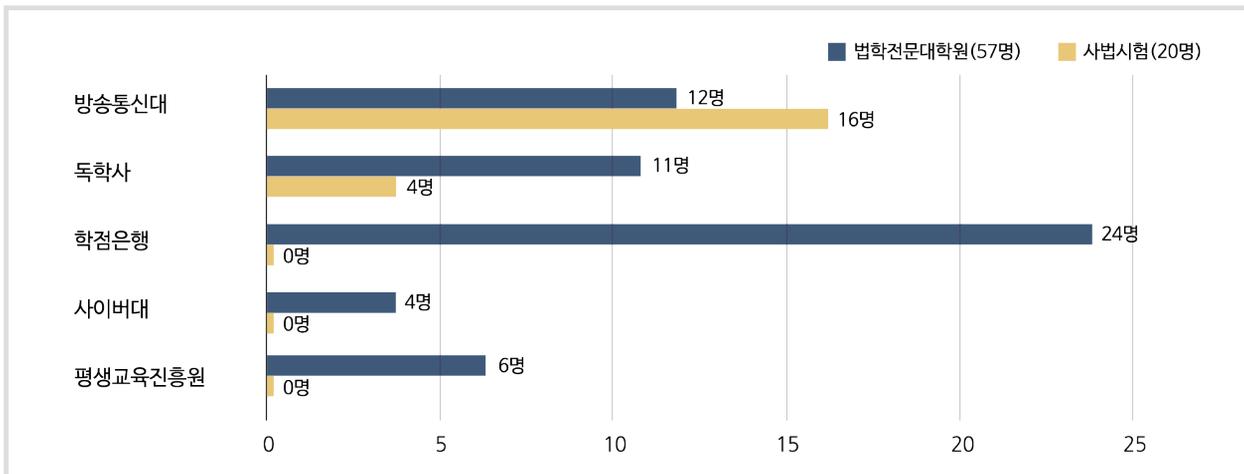
4 출신대학 비교표

(단위: 명,%)

출신대	법학전문대학원		사법시험		증감 (%)	출신대	법학전문대학원		사법시험		증감 (%)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서울대	1,856	17.83	3,192	30.52	-12.69	경성대	1	0.01	1	0.01	0.00
고려대	1,559	14.98	1,717	16.42	-1.44	강남대	-	-	1	0.01	-0.01
연세대	1,456	13.99	1,210	11.57	2.42	순천향대	2	0.02	1	0.01	0.01
성균관대	678	6.51	705	6.74	-0.23	공군사관학교	4	0.04	1	0.01	0.03
한양대	592	5.69	642	6.14	-0.45	동덕여대	1	0.01	1	0.01	0.00
이화여대	686	6.59	540	5.16	1.43	교육대	-	-	1	0.01	-0.01
부산대	222	2.13	274	2.62	-0.49	경남대	3	0.03	1	0.01	0.02
중앙대	208	2.00	195	1.86	0.13	호남대	-	-	1	0.01	-0.01
경북대	197	1.89	191	1.83	0.07	호서대	1	0.01	1	0.01	0.00
경희대	301	2.89	188	1.80	1.09	강릉대	-	-	1	0.01	-0.01
전남대	159	1.53	172	1.64	-0.12	배재대	1	0.01	1	0.01	0.00
서강대	234	2.25	164	1.57	0.68	상지대	2	0.02	1	0.01	0.01
한국외대	252	2.42	143	1.37	1.05	우석대	1	0.01	1	0.01	0.00
건국대	119	1.14	118	1.13	0.01	서원대	-	-	1	0.01	-0.01
경찰대	89	0.85	114	1.09	-0.24	선문대	-	-	1	0.01	-0.01
동국대	69	0.66	93	0.89	-0.23	기타	-	-	14	0.13	-0.13
서울시립대	129	1.24	86	0.82	0.42	기타 4년제	-	-	34	0.33	-0.33
전북대	84	0.81	66	0.63	0.18	포항공대	40	0.38	-	-	0.38
아주대	61	0.59	43	0.41	0.17	학점은행	24	0.23	-	-	0.23
단국대	27	0.26	40	0.38	-0.12	한국항공대	13	0.12	-	-	0.12
국민대	38	0.37	39	0.37	-0.01	덕성여대	9	0.09	-	-	0.09
충남대	72	0.69	38	0.36	0.33	서울고대	8	0.08	-	-	0.08
숙명여대	121	1.16	37	0.35	0.81	한국교원대	7	0.07	-	-	0.07
동아대	75	0.72	37	0.35	0.37	상명대	7	0.07	-	-	0.07
인하대	54	0.52	36	0.34	0.17	평생교육진흥원	6	0.06	-	-	0.06
원광대	41	0.39	31	0.30	0.10	성공회대	6	0.06	-	-	0.06
영남대	61	0.59	31	0.30	0.29	경인교대	6	0.06	-	-	0.06
송실대	39	0.37	24	0.23	0.15	전주교대	5	0.05	-	-	0.05
홍익대	73	0.70	16	0.15	0.55	인제대	5	0.05	-	-	0.05
한국방송통신대	12	0.12	16	0.15	-0.04	대구가톨릭	5	0.05	-	-	0.05
강원대	28	0.27	14	0.13	0.14	대구교대	5	0.05	-	-	0.05
한동대	61	0.59	12	0.11	0.47	청주교대	4	0.04	-	-	0.04
충북대	47	0.45	12	0.11	1.34	서울여대	4	0.04	-	-	0.04
조선대	26	0.25	11	0.11	0.14	한예총	3	0.03	-	-	0.03
성신여대	20	0.19	10	0.10	0.10	목포해양대	3	0.03	-	-	0.03
광운대	13	0.12	10	0.10	0.03	대전대	3	0.03	-	-	0.03
명지대	9	0.09	10	0.10	-0.01	공주교대	3	0.03	-	-	0.03
한국해양대	15	0.14	10	0.10	0.05	해군사관	2	0.02	-	-	0.02
서남대	-	-	8	0.08	-0.08	한성대	2	0.02	-	-	0.02
인천대	7	0.07	8	0.08	-0.01	울지대	2	0.02	-	-	0.02
경원대	2	0.02	7	0.07	-0.05	울산과학기술대	2	0.02	-	-	0.02
계명대	9	0.09	7	0.07	0.02	송실사이버대	2	0.02	-	-	0.02

출신대	법학전문대학원		사법시험		증감 (%)	출신대	법학전문대학원		사법시험		증감 (%)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경상대	4	0.04	7	0.07	-0.03	부산교대	2	0.02	-	-	0.02
부경대	13	0.12	6	0.06	0.07	한세대	1	0.01	-	-	0.01
경기대	2	2.02	5	0.05	-0.03	한국사이버대	1	0.01	-	-	0.01
육군사관학교	10	0.10	5	0.05	0.05	한국기술교육대	1	0.01	-	-	0.01
독학사	11	0.11	4	0.04	0.07	천안대	1	0.01	-	-	0.01
가톨릭대	19	0.18	4	0.04	0.14	차의과대	1	0.01	-	-	0.01
대구대	4	0.04	4	0.04	0.00	제주교대	1	0.01	-	-	0.01
영신대	6	0.06	3	0.03	0.03	장로회신학대	1	0.01	-	-	0.01
동의대	1	0.01	3	0.03	-0.02	울지의대	1	0.01	-	-	0.01
제주대	20	0.19	3	0.03	0.16	안양대	1	0.01	-	-	0.01
수원대	1	0.01	3	0.03	-0.02	신라대	1	0.01	-	-	0.01
안동대	-	-	3	0.03	-0.03	서울과기대	1	0.01	-	-	0.01
울산대	-	-	3	0.03	-0.03	백석대	1	0.01	-	-	0.01
목포대	1	0.01	3	0.03	-0.02	동서대	1	0.01	-	-	0.01
세종대	10	0.10	2	0.02	0.08	대진대	1	0.01	-	-	0.01
카이스트	96	0.92	2	0.02	0.90	대구한의대	1	0.01	-	-	0.01
창원대	2	0.02	2	0.02	0.00	대구외대	1	0.01	-	-	0.01
순천대	2	0.02	2	0.02	0.00	금강대	1	0.01	-	-	0.01
관동대	-	-	2	0.02	-0.02	글로벌사이버대	1	0.01	-	-	0.01
청주대	1	0.01	2	0.02	-0.01	광주대	1	0.01	-	-	0.01
서경대	2	0.02	2	0.02	0.00	가천의과과학대	1	0.01	-	-	0.01
한남대	2	0.02	2	0.02	0.00	가천대	1	0.01	-	-	0.01
부산외대	1	0.01	2	0.02	-0.01	외국대학	183	1.76	-	-	1.76
한림대	2	0.02	2	0.02	0.00	합계	10,410		10,458		-
전주대	1	0.01	2	0.02	-0.01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출신대학이 사법시험 합격자 '출신대학의 다양화'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방송통신대·독학사·학점은행·사이버대·평생진흥원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57명)은 사법시험 합격자(20명)보다 2.8배나 증가해, 법조인으로서의 진입 통로가 확대되었습니다.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은 엄정한 학사관리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통해 학생들의 실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엄정한 학사관리

① 엄격한 상대평가 및 학사관리로 교육의 질 확보

- 강력한 유급 제도 시행, 성적 절대평가 폐지 및 모든 과목 엄정한 상대평가 실시
- 상대평가시 학점인플레를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배분 비율 설정
- 재학년한 최대 5년 이후 자동 제적

② 유급현황(2015학년도 기준): 총 210명(입학정원 대비 10.12%)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인원(명)	61명	15명	134명(졸업탈락자 129명 포함)	210명
입학정원대비	2.97%	0.76%	6.39%	10.12%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시행을 통한 실력 향상

① '11년 연 1회 시행에서 '13년부터 연 3회(6,8,10월) 확대 실시

- 시험대상: 법전원 3학년 재학생 전원
- 시험과목: 공법, 형사법, 민사법, 선택과목(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중 택1)

② 변호사시험에 준하는 출제위원 구성(약100여명)

-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론, 실무), 사법연수원, 법무연수원, 헌법재판소, 로펌 변호사 참여

③ 모의시험 시행 후 평가·활용

- 모의시험 문제에 대한 출제진의 해설, 출제의도 및 문항별 정답률 공개
- 모의시험(3회분) 기본과목 해설집 발간을 통한 체계적 학습기회 제공

④ 로스쿨 졸업시험과 연계, 학사관리 엄정화

최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지원현황

1 미래 법조인 법학전문대학원생의 특권

8만 권 이상의 법률 전문도서와 법학전문대학원생만을 위한 전용 교육시설,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우수한 교수진, 법학전문대학원은 글로벌 시대에 높은 경쟁력을 갖춘 전문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최적의 환경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법령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교육과정, 교원, 시설 등을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로부터 평가받고 있습니다.

2 교육지원현황(25개 법학전문대학원 평균)



다양한 직역에서 활동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조인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는 다양한 학부전공과 사회경력을 통해 기존 법조인보다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복잡다기한 법률문제를 다원화된 법률시장과 국제적 사법체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조인을 양성합니다.

①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취업률 현황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1기~3기 졸업생들의 평균 취업률은 1기가 85.91%, 2기가 86.21%, 3기가 92.62%로 졸업생 10명 중 8~9명은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② 분야별 진출현황(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및 43기 사법연수생)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통해서서는 기업-공공기관 등 취업률이 29.5%로 나타나며 사법시험 제도와는 10% 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공기업, 사기업, 공공단체, 국가기관 뿐 아니라 지자체 및 국제기구 등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분	사법 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취업 인원	비율(%)	취업 인원	비율(%)
법원	46명	6.1	58명	4.2
검찰	40명	5.3	35명	2.5
변호사	377명	49.9	781명	56.6
법무관	179명	23.7	141명	10.2
공공기관	39명	5.2	141명	10.2
기업 등	74명	9.8	225명	16.3
총계	755명	100.0	1,381명	100.0

로스쿨출신 경력법관 26명 임명...법학전공자 3명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경력 3년 이상 법조인 26명이 신임 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청사 대회의실에서 로스쿨 출신 신임 법관 임명식을 했다.(중략) 신임 법관들의 전공은 경영학, 교육학, 경제학, 공학 등 다양했다. 법학 전공자는 3명에 불과하다. 출신 로스쿨도 골고루 분포됐다.(중략) 신임 법관 중 19명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다. 나머지 7명은 군법무관으로 근무하다 최근 제대했다. 제1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12명,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4명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16명, 여성이 10명이다.

- 2016. 08. 01 매일경제신문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은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은 법무법인 뿐만 아니라 정부(재판연구원, 법률홍닥터 등), 공공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기업(삼성전자, LG전자 등), 국제 기구(유네스코 등) 다양한 직역에서 법조인으로 뜻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청운 판사

“판사는 다수결에 의한 권력이나 수시로 변화하는 여론에 좌우됨이 없이 헌법과 법률에 기초하여 국민들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 과정에서 의식적으로 소수의 편에 서지 않더라도 다수결로 대변되지 않는 소수자들이나 정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국민들이 부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는데, 이를 통하여 큰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가장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이하림 변호사 (MBC ARTs)

“드라마 세트장에 가수 사진을 붙이거나, 뽀로로 인형 하나 놔두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저작권, 소유권 문제는 돈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사전에 리스크를 없애야 해요.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역할이고, 만약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소송으로 대응하거나 합의하고 협의하는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은의 변호사 (이은의 법률사무소)

“다양한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절반은 성폭력 사건이고, 민사 갑을 소송이 다음으로 많아요. 재산권 소송, 형사 소송, 각종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일반 성폭력도 있고 직장내 성폭력도 있는데, 직장 내에서 발생한 경우 갑을 소송에 해당하죠.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이래로 다양한 사건을 수임했고, 그만큼의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 시행착오들이 쌓여서 노하우가 생겼고, 감사하게도 믿고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정유희 변호사 (금융감독원)

“은행에 들어가면 은행 업무만 하고, 증권 회사에 들어가면 증권 쪽 업무만 하잖아요.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는 은행, 증권, 보험, 비은행(신용카드 등) 등의 다양한 업무를 2년마다 경험해 볼 수 있어요. 그야말로 미지의 세계가 열려있는 거죠. 법학에도 민법, 상법 등 분야는 다양하지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금융 업무도 서로 연결되다 보니까, 하나씩 배워가는 재미가 있어요!”



이동훈 경감 (천안 서북 경찰서)

“변호사는 인권 의식이 높아요. 변호사 특채를 통해 경찰이 되면 아무래도 경찰인권의식과 준법 수준 향상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업무 중에는 민사상의 절차를 자세히 알려주고 상담도 해주어야 하는데, 보다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죠. 특히 사기와 민사사건의 경계선이 애매한데, 상담을 통해 그들에게 적극적인 보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시제도의 폐지와 로스쿨의 도입은
수많은 논의와 합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입니다
Copyright © KOREAN ASSOCIATION OF LAW SCHOOLS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KOREAN ASSOCIATION OF LAW SCHOOLS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34 5층 TEL 02 888 2034 FAX 02 888 2025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_info.leet.or.kr 법학적성시험_www.leet.or.kr